오늘의 날씨와 생활

3월 9일 화요일 음 1월 26일 (3물)

구름 많음

기상정보

오 전

20%

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파고 1.0~2.0m 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. 아침 최저기온은 8

파고 1.0~2.0m 파고 1.0~2.0m

	9~15℃					
깅	수	확	률	오 후		
	제	주		20%		
	성	산		20%	-	
	고	산		20%		

	20%	서귀포	20%	
주간예보			〈문의 🏗 국번없이 131〉	
내일	*	맑음	7/15℃	

흐리고 비



~9℃, 낮 최고기온은 14~15℃로 전망된다.

눌	量때	20:30	15:13	
생활·안전 기상정보				
•		식중독지수	감기가능지수	



월드뉴스

코로나19에 영국서 뜬 '건강음식' 김치

10/17℃

후유증 극복에 도움된다 입소문

지난해부터 영국에서는 김치가 코로 나19를 이겨내는 데 좋은 건강음식이 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김치가 떴다.

영국 국민보건서비스(NHS) 관계 자가 팰트로의 식이요법이 과학적이 지 않은 조언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지 만, 역으로 보면 김치가 좋다는 인식 이 퍼져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.

영국 아이뉴스는 3일 '소화 잘되는 한국 스낵 김치가 어떻게 봉쇄 중 영 국에서 인기 음식이 됐나'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치가 속 편한 음식을 찾는 이들이나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건 강한 생활과 전통적인 요리법에 관해 관심이 늘며 인기가 커졌다고 말했다.

아이뉴스는 영국인 팻 빙리가 운영 하는 김치판매업체는 판매량이 지난 해 첫 봉쇄 이후 '미사일 같은' 속도 로 증가해서 11월에는 3월 대비 8배에



BBC 홈페이지에 소개된 김치.

달했다고 전했다.

BBC는 홈페이지 요리법 코너에 김 치 담그는 법을 올려놨고, 더 타임스 는 길었던 지난 겨울 긴 봉쇄기간에 필진들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면서 김 치를 담그다 실패한 이야기도 넣었다.

최근 주영 한국 대사관은 관저 요리 사가 담근 김치를 의회, 외교부 등의 한국 관련 주요 인사 50여명에게 선물 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.

한 상원의원은 김치와 함께 보낸 요 리책을 보며 부인과 함께 직접 김치를 담가봤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.

ᢀ 한리일보
제 주 의 대 표 신 문
인터넷 서비스 http://www.ihalla.c

발행인·인쇄인·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☞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(064)750-2114

e-mail:hl@ihalla.com

사 750-2828 / FAX 752-7448 서귀포지사 732-5552 / FAX 732-5559

기사제보 750-2214 / FAX 752-9790

구독신청·배달 750-2330 **구 독 료** 월정 10,000원, 1부 500원

1989년 4월 22일 창간 / 등록년월일:1988. 12. 5 등록번호: 제주, 기00002
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

한라칼럼



이 윤 형 선임기자

실로 법 제정 21년 만이다. 사건 발생 으로 치면 73년 만에 제주4·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 과했다. 바람만 불어도 눈물 나는 봄 이었다. 애기동백꽃만 보아도 아픔과 서러움, 원통함이 북받쳐 올랐던 봄 날이었다. 저마다의 가슴에 가늠하기 조차 힘든 응어리를 간직한 채 살았 던 세월이다. 이제 그 아픈 세월이 가 고 봄이 오려한다.

지난 4·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 인 대통령은 "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'이 땅에 봄은 있느냐?' 여 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"하면서 추도사를 시작했다. 그러면서 "제주

4·3은 여전히 지연된 정의다

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"는 말로 마무 리 했다. 그 후 3년 만에 그토록 바랐 던 특별법이 개정됐고, 제주에 봄이 오기 시작했다.

그러나 아직은 섣부른 봄이다. 원통 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가족의 억 울함, 73년 아픈 세월이 돈을 얼마 받 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한순간에 풀릴 수 있는 일인가. 혈육을 잃은데 대한 배보상이 결정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 만할 유족들이 얼마나 있을까. 과연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 까. 아니다. 이는 '지연된 정의'를 바 로 세우는 과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 된 것에 다름 아니다. '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'(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)이나 마찬가지라는 서양 법언이 있다. 그럼에도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되 는게 현실이다. 비록 70여년 세월이 흘렀을지라도. 세월이 흐른만큼 그 과 정은 진통이 따를 것이다. 때로는 역 사의 후퇴, 백래시(backlash)도 우 려된다. 4·3특별법이 처음 제정 이후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.

4·3특별법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제정 공포됐다. 당시 여 대야소 탓에 특별법 제정 과정은 힘 들고 험난했다. 범여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특 별법 통과가 힘든 것을 보면 당시 분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. 우여곡절 끝 에 사건 발생 50여년 만에 이뤄진 4. 3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 복의 길로 나아가는 법적, 제도적 전 기가 됐다. 2003년 4·3진상조사보고 서 채택과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 한 대통령의 사과 등이 뒤따르면서 4·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. 하지만 보수세력의 반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제동을 걸었다. 4·3은 국가추념일 지정 이외에 별다 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20년 세월을

흘려보내야 했다.

4·3특별법 국회 통과는 진상규명 과 명예회복의 기나긴 과정에서 뚜 렷한 성과임에 틀림없다. 4·3의 완전 한 해결을 바라는 유족과 도민사회 의 바람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. 억울한 희생과 감옥살이 에 대한 배보상은 비극적인 4·3에서 인권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 인 가치이자, 국가가 취해야 할 기본 적인 조치다.

이제 진정으로 사월의 봄을 맞이하 기 위해서는 의지를 더욱 다져야 한 다. 배보상 등은 앞으로 세부안 등이 드러날 것이다. 추가 진상조사의 주 체·방법, 수형인 재심 문제. 4·3사건 의 정명 등 갈 길이 멀다. 앞으로 유 족과 도민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돼 4·3의 완전한 해결의 전기로 만들 어 가야 한다. 다시 발목 잡히고, 후 퇴하는 일이 없도록. 그래야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실현될 길이 열린다.

열린마당

농작업 사고 사전 예방합시다



강경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장

농림업은 재해율이 높은 산업군에 포 함된다.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농 림업 재해율은 0.97%, 인구 1만명 당 사망자 수는 1.52%로 전체 산업과 비 교했을 때 재해율은 1.66배, 사망자 수는 1.41배 높다고 한다.

하지만 산재에 포함되지 않는 농림 업 종사자가 대다수이며 실제 재해율 과 사망자 수는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 로 생각된다.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해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데,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의 증가 로 매해 농작업 재해는 증가 추세이다.

농작업 재해 사고 중 고령농에게 자 주 발생하는 넘어짐, 낙상 등의 사고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농업기계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.

농업기계 안전사고는 2017년 92건. 2018년 81건, 2019년 104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이며 이 중 경운기와 파쇄 기, 예초기 순으로 사고가 높은 편이 다. 사고유형으로는 잔가지 파쇄기 이 용 부주의, 농용굴삭기 전복, 트랙터 전복 등으로 인한 중경상뿐만 아니라

사망사고에까지 이르고 있다.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파쇄기 등 12종 138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이다. 농업인에게 호 응이 높아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2% 증가했다. 센터는 농기계전문관을 배치해 농기계 안전사용 및 조작방법,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대처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를 가입해 농작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.

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스스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. 농작업 사고는 농업활 동 및 경제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 니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많은 상 처를 주기 때문에 사전 안전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

자동차세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



오지 용 서귀포시 세무과

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. 세금은 누 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데 자 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.

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. 승 용차 기준으로 설명하자면, 자동차세 는 배기량에 ㄸ당 세액을 곱해 1년치 세액을 산정(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 교육세 부가)하는데 납세의무자가 1 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 할 경우 연세액 기준 최고 9.15%까지 공제받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세 금을 확실히 덜 낼 수 있다.

신고납부기간은 1월·3월·6월·9월 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택스 (www.wetax.go.kr)나 ARS(1899-0341)를 통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 시기 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.

고납부가 가능하다. 또 세무과나 가까 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 청(3월2~31일)할 수 있다. 신고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으며 1 월 신고납부시에는 9.15%, 3월에는 7.5%, 6월에는 5%, 9월에는 2.5% 공 제받는다.

또한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이나 폐차·말소 등의 변동사유로 행정 처리가 이뤄졌다면 세정공무원이 알아 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일할 계산해 환급도 해 준다. 그리고 연납 한(1월, 3월) 납세자에겐 납세편의 차 원에 매년 같은 시기에 연납분 납부서 를 보내주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 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을 희망 할 경우에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.

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요즘 그리 고 현 시중금리를 생각한다면 이 연납 제도 이용을 권하고 싶다. 연납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납세자와 1월 연납 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이라도 한 번의 신고납부로 세제 혜택도 받고 자 동차세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건 어떨까 싶다. 나만 공제혜택을 받지 못 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이번 3월 연납

국내개발 우수한 [신품종]

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

• **윈터프린스** -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!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(2년생 탱자대목)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

|트예감**조 • 미니향** -작은 감귤이 맛있다! 고당도 소과형 감귤! • 하례조생 -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

과수농가 보급품종

레드향, 한라봉, 천혜향, 황금향, 유라조생 궁천, 흥진, 남진해(카라향), 제라몬, 탐나는봉

가정원예(조경수) 2~7년생

하귤, 팔삭, 세미놀, 금귤, 당유자, 아마나스,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(신고번호 03-0182-2020-3)

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,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.



종자업등록번호 제18-2017-20-02호 010-6500-2329

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



레드향(무독), 천혜향, 황금향, 윈터프린스, 제라몬(레몬), 미니향, 한라봉, 탐나는봉, 사라향, 아마나스



유라조생, 하례조생, 궁천 (2년생 이상 100% 이식한 묘목임)

농장위치

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-6번지 (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)

종자업등록번호: 18-2003-20-09

010-2691-1883

종자업등록번호 제18-2002-20-07호

유라 (1~5년생)

- 황금향 레드향
- 천혜향 하례조생
- 미니향·레몬
- 탐라향 5년생 (화분)
- 일남일호

※ 신품종 다수보유

서 귀 종 묘

064-733-7005, 010-6677-5753

당 17.4브릭스 산 1.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.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,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. **아스미**는 이제 시작단계로서,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.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 일인데,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,5년생을 판매하므로,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. 지금이 기회입니다. 많은 문의 바랍니다. 단,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,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, 바로 법에 걸어짐.

1, 4년생 **•고림조생** -카라향 3년생 -유라조생 l년생 **-하례조생** 2,3년생 ·레드향(무독) 1,2,3년생 ·한라봉 5,6년생 -하귤 **▪천혜향**(무독) 2,3,4년생 2,3,7,8년생 -그외 다수품종 1,2,3,5년생

최대규모, 최고경력, 건실육묘 35년



농장위치 :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-1번지

010-2699-2355